

신춘문에 당선작

동화

보리와 밀

이영아

보 리와 밀에게
안녕?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사실 이 말은 엄마가 내
생일 때 했던 말이야. 엄마 마음이 조금
느껴져.
너희들을 만나려고 난 꼬박 1년을
기다렸어.
나는 관찰일기를 쓰는데 가슴이 콩
콩 뛰었다. 그때, 아파트 위층에서 시
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당장에
뛰어올라갔다. 죄송하다는 위층아
줌마 목소리가 들렸다. 가끔 엘리베
이터에서 만나면 눈인사를 해주는 아
줌마데 괜히 내가 미안해 졌다. 과자
나 쿡도 주곤 하는데 말이다. 다섯 살
인 그 아이는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주는데.....
“당신이 좀 참지 그래요.”
엄마도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한마
디 했다. 미간에 주름이 잡힌 아빠의
화난 얼굴을 보자 나는 관찰일기를 계
속 쓸 수가 없었다. 가슴이 또 뛰기 시
작했다. 아까와 조금 다른 마음이다.
나는 고슴도치 한 쌍을 기르고 있
다. 아빠에게는 절대 비밀이다. 침대
위에 벌렁 누워보기도 하고, 거실을
왔다갔다 해보지만 가슴이 가라앉
지 않는다. 바람이 잔뜩 든 풍선을 몇
개 삼킨 것 같다. 고슴도치는 내 주먹
만 한데 태어난 지 3개월이다. 이름은
보리와 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고슴도치는 야행성이라 우리 잠
잘 땀 안자는데 어떡해요?”
걱정이 돼서 엄마에게 물었다.
“글쎄.”
마도 뽀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빠가 시끄럽다고 화내시면 어
떡하지?”
나는 엄마와 함께 보리와 밀을 어
떻게 감출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생
각해 보았다. 비밀결사대 같았다.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순 없어, 사실
대로 말씀드리자!”
엄마는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으
며 말했다.
“안돼요!”
나 도 모르게 소리를 껍 질렀
다. 지난 번 헬스터 키우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
다. 갑자기 큰소리가 나자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때, 밤
새 나무 긁는 소리가 신경 쓰인다고
아빠가 헬스터를 밖에 내놓았다. 아
침에 보니 얼어서 죽어 있었다. 죽은
헬스터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
다. 아빠가 쥐새끼라고만 하지 않았
어도 덜 울었을 것이다.
결국 밤에는 위층 집애다 보리와

아침이었다.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어났구나.”
화장실에 들어간 아빠와 눈이 딱
 마주쳤다. 나는 재빨리 위층으로 올
라가 고슴도치 상자를 가져왔다. 보
리와 밀은 온 몸을 공처럼 등글게 말
아 잔뜩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스트
레스를 받았나 보다. 먹이 스무 알을
먹이통에 넣고 물을 주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온통 머릿속엔
보리와 밀 생각뿐이다.
“수업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
눈치를 찻는지, 엄마가 한마디 했
다.
“너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장난하고
그러나?”
갑자기 아빠가 묻는 바람에 발이
가슴에 얹힌 듯 했다. 조마조마 했다.
“안 그래요.”
이럴 땐 얼른 자리를 피하는 게 낫
겠다 싶어, 손가락을 놓았다. 그리고
는 학교로 향했다.
마음 놓고 보리와 밀을 키우고 싶
다. 아무리 엄마가 내 편이긴 하지만
몰래 키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위층으
로 옮기는 것도 보리와 밀한테는 스
트레스를 주는 일이다. 이대로 가만



그림 = 주대희
▲조선대 미술대학 한국화과 졸업, 현재 동 대학원 석사 과정.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 무등미술대전
특선. ▲일본, 서울, 광주 등지에서 4차례 개인전. ▲한국국제아트페어, 화랑미술제 등 국내외 아트페어 참
여.

나는 고슴도치 한 쌍을 기르고 있다.
내 주먹만 한데 태어난 지 3개월이다.
보리와 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밀을 맡기기로 했다. 그 대신 일주일
안으로 아빠를 설득하기로 했다.
보리와 밀이 든 상자와 과일들을 들
고 엄마랑 위층에 갔다.
“우와!”
위층아이는 고슴도치를 보자마자
환성을 질렀다. 낮에 그런 일이 있었
는데도 위층아줌마는 내 부탁을 흔쾌
히 허락했다. 역시 좋은 아줌마다.
주의, 절대 만지지 말 것!
노란 메모지를 붙였다. 누구든지
고슴도치를 보면 막대기로 푼 푼 찌르
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밤새 뒤척이다가 세 번이나 깰다.

히 있다는 것은 보리와 밀을 키울 자
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리와 밀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
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조금 시끄
럽다고 2층까지 쫓아 올라간 아빠 얼
굴이 떠오르자 자신이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 어제 쓰다만 관
찰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가족과 잘 지내는 방법, 떠들
지 않아야 할, 어쩔 수 없는 대신 일
주일에 한번 산책 시킬 것. 목적은 나
랑 똑 같이 할 것. 우리는 가족이나 마
찬가지니까.
일은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

다.
아빠가 올 시간이 되자, 보리와 밀
을 부랴부랴 위층 집애다 맡기고 왔
다. 자려고 누워 있는데 초인종이 울
렸다.
“형아, 보리와 밀이 없어졌어.”
옷 바람으로 울먹이는 아
이와 역시 잠옷위에 옷을
을 걸친 위층 아줌마가 격
정스럽게 서 있었다. 보리
와 밀이 도망을 가고 말았다. 이 늦
은 시간에 말이다. 영문을 모르는 아
빠는 나와 위층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사태를 짐작했다.
“집안 문이 잠겼는데 어디로 갔겠
어요?”
엄마가 위층 아줌마한테 미안해서
안절부절못했다.
위층아이가 고슴도치 심심하다고
블록으로 만든 장난감을 넣어주었다
고 한다. 그걸 타고 바깥으로 나간 모
양이다. 뚜껑을 제대로 닫았어도 이
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어떡해! 쫓
쫓! 누가 나에게 허를 찌르세요! 아빠
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준비도 못
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다.
우리는 한 밤중에 우르르 위층 집
애로 올라갔다.
“고슴도치 키운 지 얼마나 되었
나?”

층계를 오르며 아빠가 물었다.
“삼 일요.”
개미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도 애하고 똑 같구먼, 나 몰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더니.”

“오하러 저희가 미안하죠.” 위층
아줌마는 정말 미안해했다.
위층아이는 어느새 고슴도치를 잊
었는지 눈을 비비며 하품을 했다. 위
층아줌마는 아이를 재우려 안방에 들

아 빠 말이 고슴도치 가서 처
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눈
물이 핑 돌았다.
“제가 잘 돌볼 수 있어
요.”
나는 찾던 손을 멈추고 아빠 앞으
로 다가가 또박또박 말을 했다.
“안 돼, 들짐승을 집에서 기르다
니.”
아빠는 엉덩이를 위로 치켜들어 피
아노 밀을 긴 막대기로 더듬었다.
“저거냐?”
마침내 보리와 밀은 동그랗게 말아
진 채 아빠 손에 잡혔다. 한밤중의 작
은 소란은 끝났다.
“죄송합니다.” 아빠는 위층아줌마
에게 두 번이나 인사를 했다. 그러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빠가 고슴
도치 상자를 집으로 가져왔다. 베딩
에 오줌냄새가 배었는지 아빠가 코를
찜그렸다.
“고슴도치 키우는 건 안 된다.”
아빠는 고슴도치상자를 아무렇게
나 놓으며 말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머릿속을 아무리 헤집어 봐
도, 고슴도치 키우겠다는 이유가 얼
른 떠오르지 않았다.
장갑을 끼고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안았다. 눈이 뜨거웠다. 가시로 찌를
<11면으로 계속>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엄마는 아랫입술을 씹으며 말했다.
“안돼요!”

이번엔 엄마에게 화살이 날아갔다.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당신
이 좀 저지워요.”
기회가 있었는지 엄마가 말했다.
“뭘 난리인지 이야기해!”
아빠는 엄마 말을 들은 체도 않고
혼잣말을 했다.
위층 거실에 들어가 보니, 보리와
밀을 찾느라 소파와 옷가지가 흐트러
져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저희
들이 찾아보면 안 될까요?”
머칠 전 일이 생각났는지, 큼큼 헛
기침을 하며 아빠가 어색해 물었다.

아셨다.
“크기가 얼마나 되냐?”
고슴도치가 있었던 베란다를 살살
이 살피며 아빠가 물었다.
“제, 제 주먹만 해요. 두, 두 마리에
요.”
아이 방 침대 밑을 들여다보며 대
답했다. 아빠가 조금 놀란 듯 했다.
“고슴도치도 야행성이냐?”
책장 뒤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물었
다.
“네.”
킷 킷 뒤를 찾아보며 대답했다.
“찾으면 당장 누구 주든지 해라.”

당뇨병 알아야 낫는다!

기적 같은 당뇨 퇴치 비법! 당뇨, 원인만 알면 별거 아니다!



저자: 전경택 한의학박사
<빛과 사랑 한의원>



저자: 고수 고려대 자연학석사
<평대동 EM대한학원 원장>

- ◎ 기적같은 당뇨 비법
- ◎ 당뇨계가 놀랄 새로운 사실
- ◎ 폭발적인 인기!
- ◎ 진실과 양심의 당뇨론
- ◎ 알고보니 당뇨 별거 아니다
- ◎ '당뇨병 없는 세상 만들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약 60%는 자신이 당뇨병이라
는 사실을 모르고 지낸다. 여기에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의학적식도 당뇨병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뇨
병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비만, 노화, 식습관, 스트레
스, 임신등이 있으나 진정한 원인은 첫째 체질의 기능
상(인슐린의 활성화 기능이상), 둘째 인슐린 리셉터의 미세탈(갑상선)부족, 셋째 호소 부족에 의한 체질의과로(호
소 없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을 분비 하려고 입을 많이 함)이다. 원인만 이해하면 완치법도 아주 간단하다는 사
실이다.
당뇨병 알아야 낫는다에서는 당뇨병의 진정한 원인과 해결 방법등을 속 시원하게 밝히고자 한다.
-책 내용 중 발췌-

문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당뇨병! 알아야 낫는다' 책자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02-563-6668 (택배비소비자부담) 건강 다이제스트사 발행

CH 중국문화원 | 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3기) 1월 8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천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絡경락/비만침법/마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중의침구학/장상론/특종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絡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활법·운동처방

- 자격: 관심있는 분 · 기간: 매주 금요일 2시간(3개월)
- 주요과목: 재활운동처방/활법/정체요법/근육조정술 등
- 활법사, 운동처방사, 척추교정사 등 민간자격증 발급

※치료 및 진료상담은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하십시오.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1544-5359
광주분원: 062)236-3516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전국 최다 합격생 배출한 그학원 LAND3
2010년도 100% 합격보장!!

개강 1월 4일 국비환급 100%

- ▶ 동영상 강의 무료제공
- ▶ 교재(기본서 6권)무료
- ▶ 오답 노트 제공

민개공 3인방

- 박홍전 교수(개론)
- 강근호 교수(민법)
- 고상철 교수(공법)

LAND3 529-8838
합격의 새로운 이념 은암동 광안고교 옆 삼애신원 2층